

세월호 격고도... 정부, 수학여행 안전은 뒷전

교육부, 지원비 전년보다 58% 줄어든 8500만원 지급 광주·전남교육청, 현장실사 인원 감축·교사가 안전 연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마련, 시행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떠넘기기에 업무와 책임감만 커지면서 불만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부의 '수학여행 지원사업비' 축소에 따라 울타리 일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수학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비' 지원을 중단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에 따른 사업비(2억원)를 절반 이상 감액해 8500만원만 내리준 게 원인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수학여행을 갈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입안,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왔다.

안전요원의 경우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자격 소지자, 관광 가이드 등에서 안전 교육을 15시간 받은 사람으로, 수학여행단과 동행해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동반해야 하는 점을 감안, 1인당 30만~40만원의 비용을 들여 외부 안전 요원을 고용하는 대신, 교사들에게 안전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토록 해 사실상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교육청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전남 초·중·고 교사 1306명은 올 상반기 자체 학교별로 '안전요원 연수비'를 마련해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 지난 2014년 안전요원 연수를 받은 뒤 2년이 지난 교사 1781명의 '재교육 비용'도 학교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뒤 관련 예산을 자체 재원이 열악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할 연수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불만이다. 또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위해 22개 시·군별로 구성된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비도 줄었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수학여행 안전 점검을 위해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있던 3명의 전담 현장 체류실무사를 1명으로 줄였고 수학여행권 설정위원 수도 축소했다. 이로 인해 각 지원청별로 전담 실무사가 수학여행·수련회를 떠나는 학교를 찾아 재차 안전 수칙 등을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학부모와 함께 수학여행지를 찾아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수학여행지 관한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점검하는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수학여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지역에서는 초등 64곳·중 35곳·고교 11곳이 이달 수도권·영남, 제주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광주도 20여개 초등학교가 이달 수학여행을 계획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8 달뜨기 15:00 달지기 02:02

해안가 강풍주의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C)

| | | | | | |
|----|-------|-----|-------|----|-------|
| 광주 | 21/27 | 보성 | 21/27 | 순천 | 20/25 |
| 목포 | 20/25 | 영광 | 20/27 | 영암 | 20/27 |
| 여수 | 20/24 | 진도 | 19/24 | 완도 | 20/28 |
| 전주 | 19/25 | 군산 | 19/26 | 김제 | 18/28 |
| 해남 | 19/26 | 홍산도 | 17/22 | 장성 | 20/27 |



바다 날씨

| 지역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0~2.5 |
| 남부 앞바다 | 남동~남 | 1.0~2.5 | 남동~남 | 1.5~3.0 |
| 남해 앞바다(동) | 남동~남 | 0.5~1.5 | 남동~남 | 1.0~2.0 |
| 서부 앞바다(서) |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5~2.5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자외선 | 보통 |
| 미세먼지 | 보통 |

주간 날씨

| 날씨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20(월) | 21(화) | 22(수) |
|----|-------|-------|-------|-------|-------|-------|-------|
| 날씨 | ☁ | ☀ | ☀ | ☁ | ☁ | ☀ | ☀ |
| 온도 | 22/26 | 19/30 | 20/30 | 19/29 | 20/27 | 20/27 | 20/26 |

光日 報勳大賞

! 14일(화)15:00 ◇ 주최: 光州日報社 ◇ 후원: ...

'호국보훈' 영광의 얼굴들
광일보훈대상 시상

광주일보사 주최 '제43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광주시 북구 오희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수상자는 ▲상이군경 부문 심호섭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김점소씨 ▲미망인 부문 김덕례씨 ▲전몰군경 유족 부문 안순순씨 ▲특별 부문 김명식씨(앞줄 왼쪽부터)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후식 광주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점수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장, 홍기범 전몰군경유족회 광주지부장, 염연자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지부장, 강철부 무공수훈자회 광주지부장, 정광의 광주보훈병원장, 박장희 광주보훈요양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혜비기자 choi@kwangju.co.kr

장마 19일 시작... 7월초 폭우 잦아

오늘·내일 국지성 호우

오는 19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5~16일에는 국지성 호우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19~20일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21일까지 중부지역에 영향을 주다가 23일 다시 남부지역으로 남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장마가 평년(6월23일)보다 3~4일 정도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초에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부지역의 평년 장마일수는 32일, 강수량은 17.1일, 평균 강수량은 348.6mm다.

한편 15일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6일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 16일까지 예상강수량은 20~40mm로,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기자 kji@

비상벨 全無·CCTV 설치율 2%... 학교 관사 안전망 '낙제점'

전남교육청 실태 조사... 503곳 중 35% 여교사 홀로 거주 방범창 설치 21%·무인경비 1%... 안전장치 연내 설치키로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관사의 허술한 안전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14일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의 관사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3개 관사(개별 동 기준) 중 CCTV가 설

치된 곳은 10개동(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503개 관사에 생활하는 교사 957명 중 35%인 332명이 여교사로 홀로 관사(147개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파 교사 혼자 거주하는 관사

는 215개동(431명)으로 조사됐다. 낙제점 수준의 관사 보안시설도 확인됐다. 방범창의 경우 전체 503개동 중 398개동(79.1%)이 설치되지 않았고 CCTV는 고작 10개동(2%)만 갖췄다. 비상벨을 달아놓은 것은 전무했고 무인경비를 갖춘 곳은 5개동(1%)에 불과했다. 여교사만 거주하는 관사 147개동 중 145개동의 CCTV가 없었고 110개동은 방

범창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날까지 모든 관사에 대한 시간장치를 자동화시키는 한편, 방범창·CCTV·무인경비·비상벨 등 안전장치도 올해 안에 설치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9일 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장성 뉴타운 하자 군이 배상하라"

장성군 역점사업 '농어촌 뉴타운'에서 하자 발생, 군이 피해주민들에게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장성군 삼서면 뉴타운 입주민 68명이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주민당 100만원)와 수리비 등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장성군은 삼서면 유평리 16만9000㎡ 부지에 200가구 규모의 뉴타운을 조성해 2010년 4월부터 분양·입대했다. 뉴

타운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인, 새로운 농촌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지면적 350㎡, 주택면적 99㎡ 규모로 분양가는 1억600만원, 임대가는 1400만원이다.

장성군과 입주민은 군이 주택 보수·수선 책임이 있고 하자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2012년 2월 입주후 하자가 발견됐고, 장성군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2억40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지만 하자가 계속 발생하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Korea(高麗) Yeosu(麗水)! 대한민국의 출발점!

우리들이 즐기는 명품관광의 매력!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오동도

거문도·백도

항일암

금오도 비형길

여수세계박람회장

진남관

여수밤바다

영취산진달래

여수이순신대교

여수해상케이블카

10景 여수시 YEOSU CITY